

**광전자,
미세전력용 리셋IC 개발**

광전자(대표 이택렬 <http://www.auk.co.kr>)는 휴대폰 등 휴대용 통신기에 적합한 미세전력용 리셋 IC를 개발, 양산 평가를 마치고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전자는 기존 MOS 방식 제품과는 달리 바이폴라 공정 기술을 이용한 1μA수준의 초미세 전력 소모 리셋 IC를 세계 두번째로 개발, 칩 크기를 MOS 제품의 30%로 감소시켰다. 또 IC 패키지 크기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휴대기기등 소형화 제품에 적합하다.

리셋 IC란 갑자기 전원이 끊어지거나 배터리가 소모되는 경우 이러한 상태를 먼저 검출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전달, 오작동 등의 문제를 차단하는 반도체로 전원을 이용하는 모든 기기의 마이크로세서단에 사용된다.

리셋IC는 최근 세계 휴대기기와 가전기기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현재 연간 30억개 정도의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산된다.

광전자 관계자는 “10억개 이상의 판매는 무난할 것”이라며 “기존 수입 부품을 대체, 수입 대체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품의
“3세대 광레코더” 개발**

삼성전자는 “디지털비디오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미래 기기의 초일류 제품 및 디지털 비디오 사업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국내최초로 HD급 영상을 2시간 이상 저장할 수 있



는 차세대 고품질 레코더인 BD(Blu-ray Disc) 레코더를 비롯하여, DVD Recorder·디지털 카메라 일체형 디지털 캠코더 등을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CD, DVD에 이은 3세대 광디스크로 각광받고 있는 블루레이 디스크 레코더를 자체 기술로 개발, 국내 최초로 선보이고 차세대 DVD 시장에서 제2의 콤보 신화를 노린다.

광디스크 분야는 그동안 선형기술을 개발해 온 일본·미국등 해외 기업들의 주도로 발전해 왔으나, BD 레코더 개발로 삼성전자는 차세대 광디스크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광디스크 분야 초기부터 원천 기술 규격 제정에 참여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였으며,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BD 레코더 시장은 물론 차세대 DVD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BD 레코더의 핵심부품인 픽업(Pick-up)을 개발함에 있어 세계 최초로 하나의 픽업으로 BD 뿐만 아니라 DVD나 CD도 재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AV용이나 PC 용으로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저소음 데크(Deck)와 오류 정정 능력과 불법 복제 방지 기능을 보강한 칩셋도 자체 개발하여 적용하는 등 BD 레코더의 전체 핵심 부품을 자체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독자적 기술 역량의 확보는 그간 국내 업체가 겪어 왔던 광디스크에 대한 특허료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차세대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와 더불어 로열티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BD 레코더는 미국식 디지털 방송인 ATSC 방식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녹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세계 최초로서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올해 수원에서 생산, 판매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DVD-RAM기반의 멀티포맷을 지원하는 DVD레코더 3개 기종을 선보였다.

이번 발표한 제품은 카트리지 타입으로는 세계최초로 멀티포맷 녹화방식으로 DVD-RAM 뿐만 아니라 DVD-R, DVD-RW를 지원함으로써, 포맷간 경쟁이 치열한 기존 DVD레코더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면서 시장을 주도해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100%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였고, RAM방식의 최대 장점인 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녹화 및 반 영구적 재생기능을 지원하며, 녹화와 동시에 재생이 가능한 타임슬립기능을 구현하는 등 앞선 기술력을 선보였다.

또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VCR 복합

레코더 콤보와 210시간이상 녹화 가능한 고용량 HDD를 탑재한 DVD레코더를 함께 선보이며 진정한 디지털 컨버전스 강자임을 재확인 시켰다.

삼성전자, 디지털TV 국제 표준 주도

삼성전자가 디지털TV 부문에서 국제 표준을 주도한다.

삼성전자가 개인 맞춤형 디지털 방송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TV-Anytime 포럼의 특허권자로 확정되었다.

개인 맞춤형 디지털 방송이란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으로, 삼성전자는 방송 네트워크 상에서 프로그램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기술 및 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2건의 기술이 TV-Anytime 포럼 규격의 핵심특허로 확정되어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권자 확정으로 향후 진행될 로열티 결정 및 정보 공유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되었으며, 지상파, 위성, 케이블 등의 전 세계 디지털 방송에 대한 로열티 수입 및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TV-Anytime 포럼의 규격은 지난 해 유럽정보통신표준기구인 ETSI의 승인을 얻은 데 이어, 미국식(ATSC) 및 유럽식(DVB) 디지털TV의 표준으로 잇따라 채택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방송에서 해당 기술들이 표준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V-Anytime 포럼은 현재 핵심 특허 및 로열티 수준을 결정하는 등 초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지속적인 TV-

Anytime 포럼 활동을 통해 이번 1차 규격 뿐 아니라, 오는 2005년까지 진행되는 2차 규격의 표준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디지털TV에 대한 핵심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이동식 저장매체로 활용 가능한 MP3폰 출시



삼성전자가 이동식 저장매체로 활용 가능한 MP3카메라폰을 출시해, 휴대폰의 디지털 컨버전스를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 휴대폰에 카메라, 캠코더, MP3 기능은 물론 이동식 저장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디스크 기능의 MP3카메라폰 신제품(모델명:SPH-S100)을 출시해, 국내 MP3폰 시장 공략 가속은 물론 휴대폰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이동식 저장매체로 활용가능한 MP3카메라폰"은 128MB 메모리 내장으로 메모리를 대폭 확대했으며, 이 중 68MB를 이동식 저장매체(이동식 디스크)로 활용 가능한 저장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PC파일, MP3 파일 등을 저장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을 이동식 저장매체로 활용하려면 PC케이블을 이용해 휴대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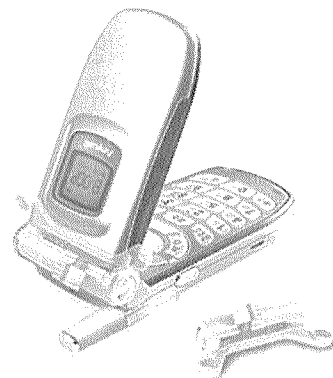
PC를 연결한 다음 휴대폰 메뉴에서 "이동식 디스크"메뉴를 선택한 후 PC파일을 휴대폰으로 옮기면 된다.(기존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해 PC파일을 저장하는 방법과 동일)

이 제품은 MP3 원음 재생 기능으로 인터넷을 통해 PC로 다운받은 *MP3파일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디지털 저작권관리)기술을 통해 휴대폰용 MP3 파일로 전환해서 휴대폰에서 구현할 수 있어, 최대 17곡(4MB MP3파일 기준)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특히, 휴대폰 양쪽에 두 개의 고성능 스피커를 장착한 것이 특징으로, 두 개의 스피커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선명한 MP3파일을 들을 수 있다.

3D 아바타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애니콜 MP카메라폰 신제품은 매가픽셀(100만화소) 카메라 내장으로 선명한 사진촬영은 물론 최대 2시간 연속 동영상 녹화가 가능해 캠코더처럼 활용할 수 있어 젊은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기, 초소형 오토 폴더 모듈 개발



삼성전기(대표 강호문 <http://www.sem.samsung.co.kr>)는 버튼 하나로 휴대폰을 열고 닫는 초소형 오토폴더모듈을 이달 중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초소형 오토폴더모듈은 0.7초 안에 휴대폰을 열 수 있어 기존 제품보다 15% 이상 속도를 향상시키고 소비전력·소음 특성을 개선했다.

또 이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부피를 32% 이상 축소했으며 자동 개폐기능과 함께 수동 개폐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밀위치인식센서를 사용, 폴더를 열고 닫을 때 장애물이 있으면 원상태로 자동 복귀하는 원점복귀기능이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 회사 이인호 팀장은 “기존 오토폴더모듈은 스프링을 이용한 방식이어서 자동으로 열기만 하고 수동으로 폴더를 닫아야 하는 단점이 있었지만 신제품은 버튼 하나로 휴대폰을 열고 닫는 전자동 방식”이라며 “고품질 휴대폰 출시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기는 지난 2002년 5월 전자동 오토폴더 모듈 개발에 성공, 삼성전자의 중국 수출 모델인 애니콜 SGH-T208에 적용한 바 있으며 국내에도 이번 초소형 오토폴더 모듈이 채택된 PCS 단말기가 곧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비코전자, SMD파워인덕터, 휴대폰용 스피커 등 신규 사업 주력

지향 및 인덕터 부품 업체 아비코가 올해 SMD 파워 인덕터의 매출을 연간 240억원으로, 휴대폰용 스피커·리시버도 33억원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지난해 대규모 투자를 통해 SMD 파워 인덕터와 휴대폰용 스피커·리시버 생산

라인을 중국에 증설한 아비코(대표 이종만 <http://www.abicocokr>)는 부가가치가 높은 대전력용 SMD 파워 인덕터의 매출을 지난해의 월 3억원 수준에서 올해 월 20억원으로 끌어올리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휴대폰·PDA용 스피커·리시버의 시장 공략에 본격 착수, 사업을 본궤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분야 매출을 올해 전체 매출의 8%인 33억원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국·대만 업체들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올해 DMB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 중국 DMB 단말기에 들어가는 DMB 수신기용 칩인덕터(LMC) 공장에 10억~20억을 추가 투자, 올해부터 1005 크기의 소형 LMC의 생산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자파 노이즈를 차폐하는 칩 커먼모드 노이즈 필터의 신규생산과 설계상의 문제로 생산을 중단했던 LMF 제품도 올 하반기에 재생산에 들어간다.

휴맥스, 중동 ADD방송사에 셋톱박스 800만 달러 수출



디지털 가전 업체인 휴맥스(대표 변대규 <http://www.humaxdigital.com>)는 최근 중동지역의 최대 위성방송사업자인 ADD(Arab Digital Distribution)에 1차로 800만달러 규모의 디지털위성방송수신용 셋톱박스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휴맥스는 ADD의 기존 셋톱박스 최대공급 업체이자 이 지역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UEC와의 경쟁 끝에 독점 공급권을 확보, 지속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휴맥스는 이로써 지난 2001년 처음 중동의 3대 위성방송사업자의 하나인 오빗(Orbit)사에 셋톱박스를 공급한 이래 두번째로 중동지역 방송사에 직접 공급하게 됐다. 휴맥스와 ADD간의 공급방식은 수출대금의 안정적 회수가 가능하도록 대부분 신용장(LC)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공급제품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데토엑세스(Irdeto access)의 수신제한시스템이 내장된 셋톱박스(모델명 IR-ACE II·사진)다.

휴맥스는 이와 함께 추가로 800만 달러 규모의 셋톱박스를 올해 안에 공급할 계획이어서 올해 이 방송사에 대한 공급액은 160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휴맥스는 또 ADD와 중동의 위성방송 수신기 시장 개발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상호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국내 최초 복합 멀티미디어 PDA폰 출시

LG전자는 ▲국내 최초 메가픽셀 카메라를 장착하고 ▲첨단 인텔 CPU, MS OS 적용 ▲고선명/고화질의 QVGA급 26만2천컬러TFT-LCD 채택 ▲MP3 플레이어 지원 등 다기능 멀티미디어 PDA폰(모델명: LG-



SC8000(SKT용))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PDA폰으로는 국내 최초로 CMOS 방식보다 미세한 표현과 색상구분이 가능하고 고화질, 고성능의 디지털카메라에 사용되는 CCD 방식의 110만 화소 카메라와 플래시를 내장했다.

슬라이드업 방식의 이 제품은 인텔(Intel)의 PDA용 400MHz 엑스스케일(Xscale) 프로세서와 총 192MB의 내장 메모리 탑재,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Pocket PC 2003 한글판' 운영체제를 채택, 다기능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 휴대폰의 새로운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선명, 고화질의 QVGA급(240×320 Pixel) 26만2천 컬러 TFT-LCD를 채택해 보다 생동감있는 화면을 구현하고, PDA보다는 작은 2.8인치 LCD의 이상적인 크기를 적용했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편리하도록 SD(Secure Digital)카드 및 MMC(Multi Media Card)를 지원하는 디지털 미디어 슬롯을 장착, 저장용량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블루투스 및 무선랜카드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무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IrDA(적외선포트), USB 통신 및 Serial 통신 등을 이용해 자동차 GPS 네비게이션과 같은 다양한 정보통신기기와 커뮤니케이션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이 제품은 MP3 플레이어 및 1시간 동영상 캠코더 기능과 같은 고급 멀티미디어 기능에 수신보류 및 스팸(Spam) 문자메시지 차단과 같은 신개념 휴대폰 서비스를 추가했으며, MS Office, Outlook과 연계된 PIMS(개인정보관리), Internet Explorer 및 MSN 메신저와 같은 포켓 PC의 기본 기능도 제공한다.

이밖에 33만 단어를 지원하는 전자영어사전과 EBS의 28개 어학강좌 콘텐츠 무료사용권을 제공하는 등 교육 멀티미디어 기능을 극대화했다.

LG전자, 『세계 최초 수납 맞춤형 디오스』출시

LG전자는 서랍 냉동실 구조의 「세계 최초 수납 맞춤형 디오스」(모델명: R-S556GUS, 용량:546 l) 신제품을 유럽시장과 한국시장에 동시에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세계 최초 수납 맞춤형 디오스는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감에 따라 기존 양문형 냉장고에 유럽에서 보편화된 냉장고 스타일인 서랍 보관방식을 채택한 제품으로 냉동실을 각각의 독립공간으로 구분하기 위해 냉동실을 6개의 서랍 칸으로 만들었으며, 냉장실도 따로 음식을 보관, 수납할수 있게 하기 위해 3개의 서랍 칸을 채용했다.

특히, 이 제품은 LG전자가 북미시장 공략을 위해 내놓은 「TV디오스」, 「컨투어 디오스」에 이어 「수납 맞춤형

형 디오스」의 유럽 및 한국시장 동시 출시를 통해 유럽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 공략의 신호탄을 올린 것이다.

LG전자의 최근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맛별이의 보편화, 주 5일제 확산에 따른 주 1회 쇼핑 등으로 한번에 많은 양의 식품을 구입 저장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 양문형 냉장고에 많은 식품을 보관할 경우 안쪽에 있는 식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며, 이것을 꺼내기 위해 앞쪽에 보관된 모든 식품을 꺼내야 하는 등 수납의 불편함이 제기되었다.

LG전자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냉동실은 아래부터 서랍 칸 4개, 얼음 사용에 편리한 「트위스트 아이스 트레이」, 위 상단 2칸은 입구를 위로 열 수 있는 플랩 구조 타입 서랍 등을 적용했으며, 냉장실도 3개의 서랍 칸을 적용했다.

또한 서랍도 투명소재를 채용해 음식물이 많을 경우에도 식품을 직접 꺼내지 않고도 서랍 내부의 식품을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서랍을 열었을 때도 정리 정돈된 깔끔한 느낌을 주며, 냉장고 내부 청소도 매우 용이하다.

한편, 냉장실은 기존 도어 선반이 물건의 크기나 종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보관할 수 밖에 없는 불편함도 개선해 도어 선반을 도어 내벽 레일을 따라 움직임이 가능토록 해 보관될 물건의 크기, 종류에 따라 구획별로 나누어 보관할 수 있도록 바스켓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지난해 미국 FDA, EPA, ISO, 일본 SIAA 등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은(銀) 나노 항균과, 신선한 냉기로 식품의 신선도를 높여주는 녹



차이온 냉각, 외관은 최고급 티타늄 소재와 프리미엄급 모델에 적용하는 고급 알루미늄 핸들, 새로운 스타일의 마이콤을 적용해 고급 이미지를 살렸다.

이처럼 공간 효율성을 최대로 한 「수납 맞춤형 디오스」는 국내 일반 가정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 및 신혼가정까지 매우 적합한 제품일 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 시장의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기존 유럽업체 제품과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유럽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G전자, 세계최초 일체형 42" LCD TV 출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LCD TV와 디지털방송 수신기를 일체화한 42인치 LCD TV를 출시했다.

LG전자는 독자기술의 디지털방송 전송기술에 관한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디지털 지상파 셋톱박스를 내장한 일체형의 42인치 LCD TV(모델명 : DN-42LZ30)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LCD TV는 별도의

디지털방송 수신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고화질 HD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셋탑박스과 TV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화질의 열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보다 더 완벽한 화질을 제공한다.

또한 이 제품은 S-IPS(Super-In Plane Switching) 방식의 모듈 채용으로 기존 TN방식(좌우/상하 150/120도)을 채용한 제품보다 훨씬 넓은 상하/좌우 176도의 광시야각을 구현하여 어느 위치에서나 고화질을 TV를 시청할 수 있다.

LG전자가 출시한 42인치 LCD TV는 뛰어난 광시야각으로 인해 측면에서 TV를 볼 때에도 정면에서 화면을 보는 것처럼 화면의 왜곡없이 선명한 화질이 가능하고, 독자기술의 화질개선 칩인 'XD Engine'을 탑재하여 보다 뛰어난 화질향상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디지털 영상을 제공한다.

특히 이 제품은 고성능 스피커가 화면 좌, 우 양쪽에 위치한 스테레오 디자인 스피커 일체형으로서 스피커가 화면 하단에 위치한 모니터 디자인보다 더 넓은 음장(音長)을 형성하고, SRS TruSurround 음향 채용으로 2개의 스피커가 5.1채널과 같은 강력한 음질효과를 제공하여, 보다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음질 감상에 최적이다.

42인치 LCD TV출시로 13"~42" 급의 다양한 제품라인업을 확보한 LG전자는 향후 LCD TV 수요가 점차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대형 중심의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30인치 이상 고급형 제품은 DTV Tuner를 내장한 일체형의 제품을 적극 출시하는 한편, DVD Player/메모리카드슬롯 등을 내장한 다양한 컨버전스(복합형)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SWP신우전자, 휴대폰용 원도 패널 양산 돌입

휴대폰 부품 전문업체인 SWP신우전자(대표 허훈 <http://www.swpshinwoo.co.kr>)가 4월부터 휴대폰용 원도 패널의 양산에 들어가며 이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원도는 컬러폰 등 휴대폰과 DVD·LCD·MP3플레이어 등 LCD 디스플레이가 쓰이는 가전 기기에 폭 넓게 사용되는 부품이다. 이 회사는 월 100만개의 생산능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시설 내에 진공증착 설비를 구축, 외주 가공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SWP신우전자는 올해 100억원, 3년 내에 300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국내 주요 휴대폰 업체들을 공략하는 한편 앞으로 유럽·대만·중국 등으로 원도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회사 허훈 사장은 "음향·음성 부품 기술 중심에서 휴대폰 부품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해 휴대폰 종합 부품 제조업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SWP신우전자는 초소형 스피커, 버저, MFD 등 휴대폰 음성기술 관련 부품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로 최근 휴대폰용 원도 패널과 휴대폰 조립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